

마가복음의 예수님(55) - 당신은 종교인입니까? 신앙인입니까?(막 12:1-12)

설교 조상용 담임목사

예수님은 종교인에 지나지 않았던 유대종교지도자들을 “포도원의 악한 농부”에 비유하셨다. 이 포도원의 악한 농부는 주인이 정성껏 포도원을 만들어서 맡겨 주었지만 세를 받기 위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 주인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냈지만 악한 농부들은 포도원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그 아들까지 죽인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유대종교지도자들이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는 참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셨다. 과연 ‘종교인’을 넘어서 ‘참된 신앙인’이 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1.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주인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1절)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좁 짚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여기 주인이 자신의 포도원을 얼마나 정성을 다해 만들었는지 볼 수 있다. 이것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란 사실을 잊어버리는데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포도원의 일꾼이란 사실을 망각하고, 마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행세한다. 신앙의 위기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망각할 때 시작된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종교지도자들은 그들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의 가정, 일터, 나아가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주인이신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참된 ‘신앙인’이 되자.

2.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들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2-4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주인이 보낸 ‘종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끊임없이 당신의 일꾼들을 보내셨다. 그러나 농부들이 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모욕하며 그들을 잡아서 죽여 버렸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죄 가운데서 돌이킬 때, 부흥이 일어났고 축복이 임했다. 반대로 오늘 비유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꾼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저주와 심판이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분들의 영적 권위를 인정했다는 것이다. 말씀을 전하는 분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 말씀을 따라 참된 ‘신앙인’이 되자.

3.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으십시오.

(7-8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주인은 “자기 아들은 존대하리라” 기대하면서 포도원으로 보냈지만, 기대와는 달리 농부들은 그 아들까지 죽이고 말았다. 보낸 것은 주인의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낸 메시아시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과 종교지도자들은 악한 농부들처럼 예수님을 죽인 것이다.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던진 유대인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다. 모든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구원의 돌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우리는 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생명을 누리며 참된 ‘신앙인’이 되자.

마가복음의 예수님(55) - 당신은 종교인입니까? 신앙인입니까?(막 12:1-12)

1. 마음 열기 - 지난 1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은 일은 무엇인가요?
2. 경배와 찬양 - 찬 315장,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3. 말씀 나누기 - 먼저 성경 본문과 말씀 요약을 읽으세요.

- (1) 성경 본문과 설교를 통해, 특별하게 다가온 말씀이나 은혜받은 교훈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 (2)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는 분들을 우리에게 계속 보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축복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하십니다.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을 전하는 분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자입니다. 나는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야기 해 봅시다.
- (3) 하나님은 아들까지 보냈지만, 그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버린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 구원의 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나요?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요?

4. 사역 나누기

- (1) 성령 충만한 목장과 돌봄이 필요한 목원을 위해 기도합시다.
- (2) 우리 목장이 품은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 기도합시다.
- (3) “성탄축하행사”와 “성탄감사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